

KDB DAEWOO DAILY

2013. 2. 20 (수)

코스피지수 (2/19)	1,985.83P(+3.92P)
코스닥지수 (2/19)	522.49P(+3.97P)
KOSPI200지수 3월물	263.35P(+1.05P)
중국상해종합지수 (2/19)	2,382.91P(-38.65P)
NIKKEI225지수 (2/19)	11,372.34P(-35.53P)
원/달러 환율	1,081.20(-0.90)
엔/달러 환율	93.88(+0.05)
국고채 수익률 (3년)	2.69(-0.02)
유가(WTI) (2/19 23:42)	95.73(+0.35)
국내주식형수익증권(2/18)	676,867억원(+945억원)
해외주식형수익증권(2/18)	253,259억원(-214억원)
고객예탁금(2/18)	174,672억원(+5,872억원)
신용잔고(2/18)	40,555억원(-17억원)

퀀트전략

대형주와 중형주 선택의 밸류퍼즐을 풀다 (요약)

경제분석

중국 춘절 소비는 업그레йд, 실속형으로 변화

qSketches

52주 신고가 달성 종목의 4대 특징

기업분석

씨젠[매수] - 김나연: 시즌 2 개막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아비코[매수] - 황준호: 가시권에 들어온 턴어라운드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대형주와 중형주 선택의 밸류퍼즐을 풀다 (요약)

사이즈별 자산 배분 모델을 소개합니다

‘내재성장률 괴리차 모델’로 대형주와 중형주의 상대 매력도를 측정할 경우, 관련 상품에 투자하거나 주식 내 사이즈별 자산 배분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2011년 8월 이후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다.

모델의 작동 원리는 PEG(price/earnings to growth) 비율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PER에 장기성장률 전망을 감안한 PEG 비율이 합리적인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 현재 PER에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 말하는 장기성장률과 2) 바텀업(bottom-up) 측면에서 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전망을 비교해 투자 매력도를 판단하는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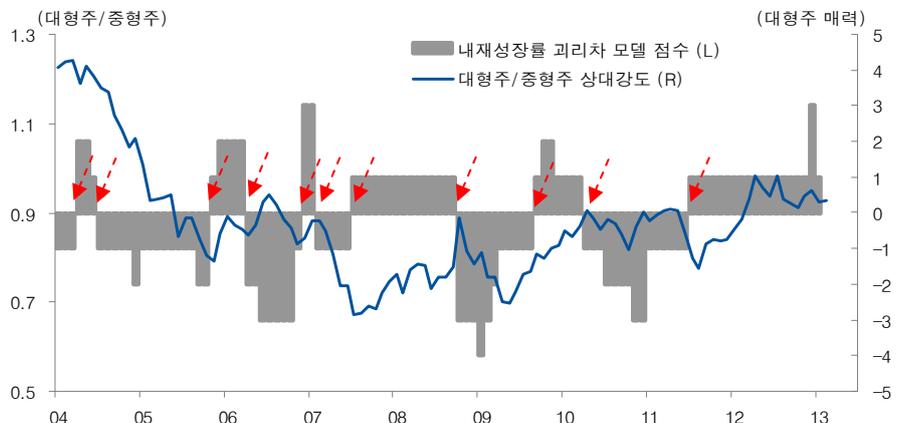
모델 점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매매시점

대형주에 유리한 (+)상태에서 중형주에 유리한 (-)로 전환될 때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갈아탈 시점이고, 반대의 경우 대형주로 교체해야 된다. 신호에 따라 매매했을 경우, 04년 이후 KOSPI 대비 304%p의 초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향후 중형주가 매수 신호로 전환되는 시점이 기희다

현재는 대형주의 상대적인 펀더멘탈이 더 좋으나, 매수신호가 발생한지 1년 이상 되었었고 이미 대형주가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기대 수익률은 낮추어야 한다. 결국 큰 기회는 향후 중형주가 매수 신호로 전환되는 때에 있을 것이고, 신호전환은 향후 환율이 대형 수출주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펀더멘탈이 역전될 경우 가능해 보인다.

그림 1. 모델 점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매매시점



자료: Wisefn,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본 보고서는 20페이지 가량의 원문을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원문은 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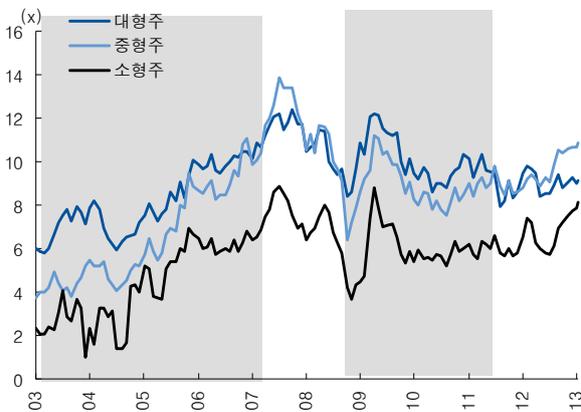
1. 대형주와 중형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1) PER이 가진 한계

대형주와 중형주도 밸류에이션 수준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고, 이는 특정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닌 어떤 투자 환경 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논리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매전략은 PER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싼 것을 매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밸류에이션의 상대적 저평가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주기도 부진했던 경우가 많아 단순 PER에 근거한 매매전략을 실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림 2. 대형주와 중형주의 12개월 선행 PER 수준은 유사



자료: Wisefi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그러나 PER이 낮다는 이유로 매수해도 결과 보장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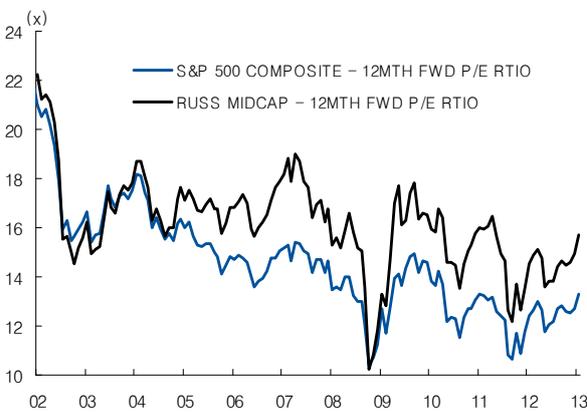


자료: Wisefi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해외도 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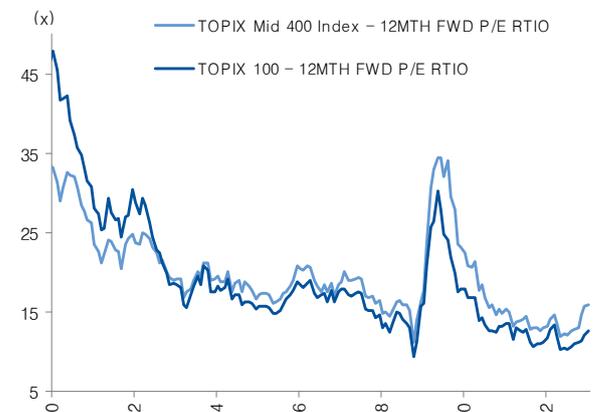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 높은 PER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므로 PER이 낮다고 매수하는 전략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2000년 이후 미국은 PER이 높은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이 뚜렷했다.

그림 4. 미국의 중형주도 대형주에 비해 대체적으로 고평가 상태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일본의 중형주도 대형주에 비해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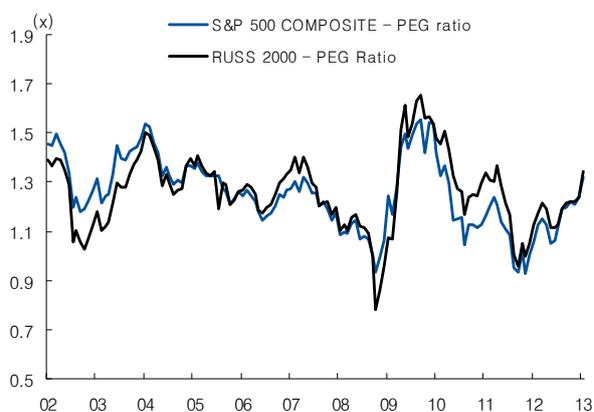
3) PEG 비율이 대안이다

결론적으로 PER을 장기성장률 전망으로 나눈 PEG 비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PER로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이 났던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 PEG 비율로 비교하면 신기할 정도로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가치 평가를 할 때, PER 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률까지 같이 보면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전 투자에서도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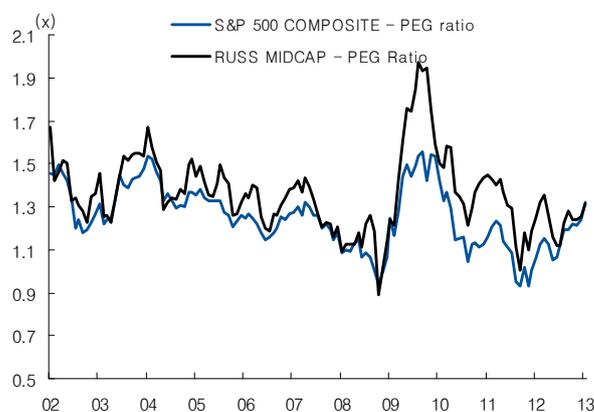
이러한 점을 반영해 ‘내재성장률 괴리차 모델’을 만들게 되었다.

그림 6. 미국의 대형주와 소형주 PEG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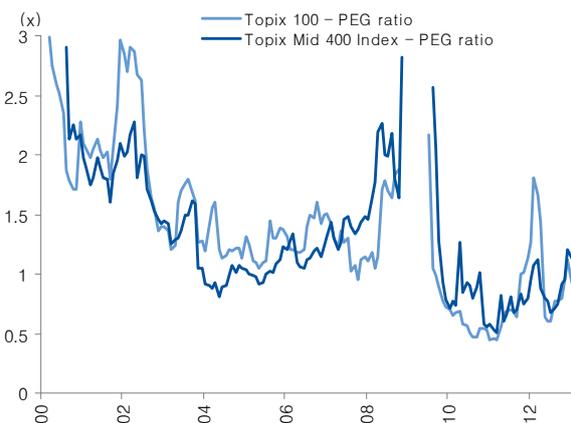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미국의 대형주와 중형주 PEG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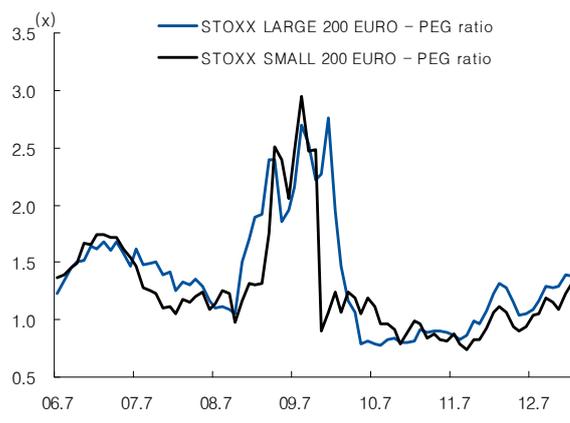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일본의 대형주와 중형주 PEG 비율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유럽의 대형주와 소형주 PEG 비율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내재성장률 괴리차 모델이란?

2. 내재성장률 괴리차 모델

내재성장률 괴리차 모델은 1) 현재 PER에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 말하는 장기성장률 전망과 2) 바텀업(bottom-up) 측면에서 과거 2년과 향후 1년의 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전망을 비교해 대형주와 중형주의 투자 매력도를 판단한다.

1) 절대적 매력이 아닌 상대적 매력에 중점을 둔 모델

PEG 비율에서 사용하는 장기성장률 전망치 데이터의 절대적인 수치는 사실 신뢰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절대적인 성장률 수치가 아닌, 현재 대형주나 중형주 중 어느 쪽의 성장성을 장기적으로 더 좋게 보는지에 관한 투자자들의 생각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케인즈처럼 미인대회에 비유해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미(美)를 점수화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A보다 B라는 참가자가 더 아름다운지에 관한 결론을 예측하기는 좀 더 쉽다.

절대적 수치가 아닌
상대적 우월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뢰성 높여

결국 본 보고서를 통해 도출해야 되는 결론은 대형주와 중형주 중에서 어떤 그룹의 성과가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래서 PEG 비율이 얼마여야 적정 수준인지와 같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대형주와 중형주 중 어느 쪽의 장기성장률 전망이 높은지와 같은 상대적인 우월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델의 신뢰성을 높였다.

다만 소형주의 경우 성장률 전망 데이터의 신뢰성도 가장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망치 자체도 부족해, 대형주와 중형주를 기준으로 모델을 만들었다. 실제 국내 소형주의 경우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해 모델을 만들어도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림 10. 절대적인 미(美)의 점수는 맞추기 힘들지만 누구를 더 아름답게 생각하는지는 알기 쉽다



자료: hdw.eweb4.com 사이트 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 미녀와 야수 월페이퍼(wallpaper),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가격에 내재된 성장률과 애널리스트 전망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

앞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가치평가는 PEG 비율이 기준일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주요국가의 사례를 통해 보여줬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의미 있는 대형주와 중형주의 장기성장률 전망치가 없고, 그나마 Thomson Reuters에서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도 KOSPI 전체에 대한 장기성장률 추정치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PEG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내재성장률 역으로 유추

그러므로 두 그룹간 PEG 비율을 직접적으로 활용해 매매전략을 세우기는 힘들다. 다만 역으로 PEG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대형주와 중형주의 현재 PER에 내재되어 있는 성장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현재 PER이 높다면 내재된 투자자들의 장기성장률 전망은 높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 성장 기대감이 낮다는 의미이다.

결국 Thomson Reuters의 KOSPI 장기성장률 추정치데이터와 PER을 활용해 KOSPI의 PEG 비율을 계산한 후, 대형주와 중형주의 PEG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KOSPI에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각각의 PER 데이터에 내재된 두 그룹의 장기성장률 데이터를 역산(逆算)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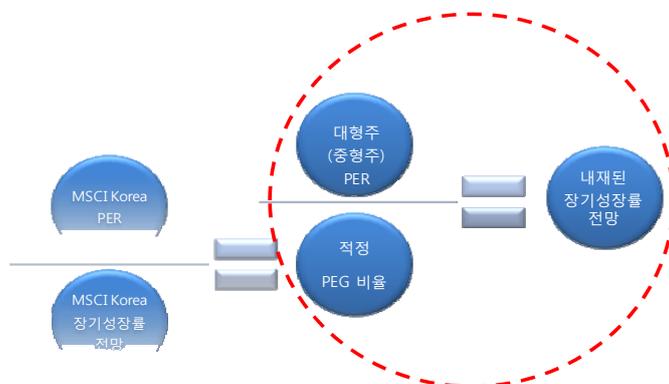
시장이 말하는 성장률과 비탐업 장기성장률 전망은 결국 수렴할 것

이렇게 가격(PER 구성요소 중 하나가 가격)에 내재된 시장이 말하는 장기성장률 값과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개별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탐업(bottom-up) 데이터 상의 장기성장률 값의 차이가 클 경우, 대형주와 중형주 지수는 두 성장률의 차이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현재 PER을 통해 대형주에 내재된 장기성장률을 역산해 보면 15%로 나왔는데,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대형주에 속한 종목들의 장기성장률을 계산했을 때 3%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대형주의 PER은 고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형주의 향후 지수 움직임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물론 대형주와 중형주의 상대 강도 측면에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그룹이 좀 더 실제 내재된 성장률과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장기성장률 전망과의 차이가 크지가 중요하다.

그림 11. PER과 PEG 비율 통해 PER에 내재된 장기성장률 전망 역산 기능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네 가지의 요건 도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총 네 가지의 요건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요건 1, 대형주의 내재성장률 - 대형주의 연평균성장률(CAGR) 추정치:

-> 차이가 커질수록 대형주의 고평가 확률이 높아 대형주에 (-), 중형주에 (+)

요건 2, 중형주의 연평균성장률(CAGR) 추정치 - 중형주 내재성장률:

->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값이 커질수록 대형주에 (-), 중형주에 (+)

요건 3, 중형주의 내재성장률 - 대형주의 내재성장률:

-> 내재된 성장기대감이 클수록 PER이 높아 값이 클수록 대형주에 (+), 중형주에 (-)

요건 4, 중형주의 연평균성장률(CAGR) 추정치 - 대형주의 연평균성장률(CAGR) 추정치:

-> 높을수록 중형주의 실제 성장률 전망이 높다는 것이므로 대형주에 (-), 중형주에 (+)

핵심은 시장이 말하는 성장률과 애널리스트 전망의 괴리는 결국 좁혀진다는 것

갑자기 4가지 요건을 나열하니 한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모델을 만들 것이 아닌 이상 모델의 논리를 기억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 요건의 핵심은 시장이 말하는 성장률과 애널리스트의 전망의 괴리가 클 경우 괴리가 좁혀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순환적 베팅(betting)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연평균성장률 추정치의 경우 각 그룹에 속한 종목 대상으로 과거 24개월 동안의 실제 성장률과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12개월 전망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값이다.

1) 미래에 대한 추정치 만을 바탕으로 연평균성장률 값을 계산할 경우 낙관적 편향(bias)이 커 신뢰성이 떨어지고, 2) 과거에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가 실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성장률 전망치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3) 장기적인 연평균성장률 전망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과거 실제 성장률과 향후 추정치를 혼합해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림 12. 요건 네 가지의 비교 방법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대형주 대안이 없을 때 중형주 관심이 커진다

4) 다섯 번째 요건: 대형주 장기성장률 전망

마지막으로 감안해야 될 점은 대형주의 연평균성장률 전망이다. 대형주의 장기성장률 전망이 높으면 그만큼 대형주의 펀더멘탈이 좋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 시장의 수급을 좌우할 만한 투자자들이 중형주 이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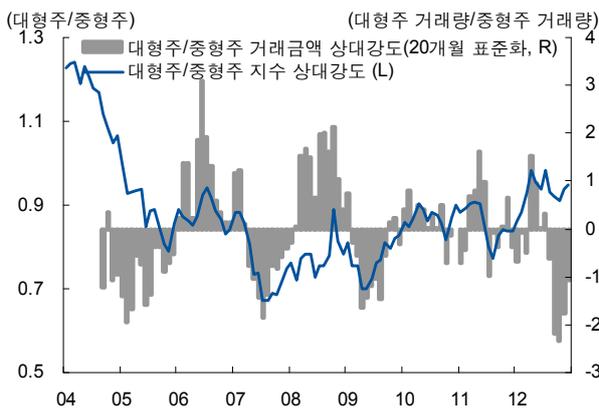
예를 들어 지난해 횡보장에서 대형주 중심의 주도주 부재로 중소형주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이나, 최근 환율 영향으로 대형 수출주의 낙폭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주 중에서 살만한 종목이 없을 때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 결과 대형주와 중소형주 성과는 두 그룹간 거래금액과 상관관계가 높다. 중소형주 지수의 거래금액이 대형주 거래금액에 비해 증가할 때 실제 지수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을 확률이 월간 기준으로 77%에 달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거래금액이 커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관심이 증가할수록 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펀더멘탈을 감안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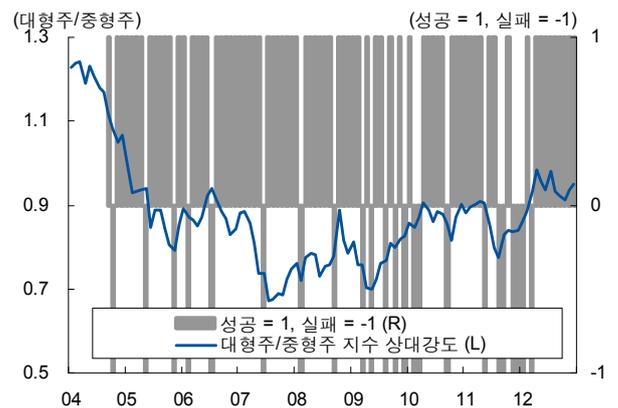
다만 거래금액은 지수와 동행지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 추세매매의 투기(speculation) 논리는 될 수 있지만, 투자(investment) 측면의 펀더멘탈 적 접근법은 될 수 없다. 이에 투자자들의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펀더멘탈을 감안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표로서 대형주의 장기성장률 전망이 중요하다.

그림 13. 중소형주의 거래금액이 늘수록 지수 성과도 좋아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상대강도 지수와 거래금액의 방향성 일치 확률 77%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04년 이후 KOSPI 대비 304%p
초과 성과**

5) 백테스팅 결과

상술한 다섯 가지 요건을 적용해 ‘내재성장률 괴리차 모델’을 만들어 대형주 지수와 중형주 지수의 매력도에 따라 교체 매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04년 이후 이론적으로 KOSPI 대비 304%p 초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모델 점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매매시점이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대형주에 유리한 (+)에서 중형주에 유리한 (-)로 전환될 때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갈아탈 시점이고, 반대로 (-)에서 (+)로 전환될 때 대형주를 매수해야 된다.

물론 현재 모델 점수가 (+)인 것은 현재 투자환경이 대형주에 우호적인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모델이 (-)에서 (+) 전환된 지 많은 시간이 흘러 이미 대형주 지수가 중형주에 비해 많이 올랐을 경우, 대형주의 아웃퍼폼(outperform) 확률은 부호가 바뀌는 시점에 매수했을 때보다 떨어진다.

그림 15. 모델 신호에 따라 대형주와 중형주 교체매매를 했을 경우 성과 인상적



자료: Wisefn,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6) 중형주 매수 적기를 기다리며

모델에 의하면 201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대형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PER 수준을 감안한 펀더멘탈은 현재 대형주가 중형주에 비해 양호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11년 4분기 이후 작년까지 대형주 상승폭이 컸다는 점과, 향후 환율이 대형 수출주의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펀더멘탈(fundamental)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야 한다.

**지금은 대형주이나
기대수익률은 낮추고 향후
중형주 매수 신호를 노려야**

결론적으로 현재는 대형주의 펀더멘탈이 더 좋으나, 매수신호가 발생하지 오래되었고 이미 대형주도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기대 수익률은 낮추어야 한다. 결국 큰 기회는 **향후 중형주가 매수 신호로 전환되는 때에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 허재환 02-768-3054 jaehwan.huh@dwsec.com
 최홍매 02-768-3439 hongmei.cui@dwsec.com

중국 춘절 소비는 업그레이드, 실속형으로 변화

중국 최대 명절 중 소비가 주춤했다. 2013년 춘절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전하향 정책 만료와 스모그,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소비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소비가 업그레이드 됨과 동시에 과시형보다는 실속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업그레이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해외 여행이고, 실속형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쇼핑 증가에서 알 수 있다.

2013년 중국 춘절소비 증가율, 2010년 이후 최저

2013년 춘절 소비 증가율은 하락

중국 최대 명절 중 소비가 주춤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춘절기간(2월 9일~15일) 소매판매 증가율은 14.7% 증가하였다. 2013년 춘절소비의 증가율은 공식 통계치가 발표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2010~2012년 평균 증가율은 16.2%).

음식료/의류보다 발렌타인데이 효과로 보석류 판매 호조

음료와 식품 판매는 전년대비 9.8%, 11.2% 증가했고, 의류 모자/신발은 전년동기대비 6.3%, 7.5% 증가하였다. 귀성수요로 인한 항공편 수와 여객 운송량은 전년대비 18.3%, 18.0% 증가하였다. 동 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보석류로 전년동기대비 38.1% 증가했다. 이는 발렌타인데이와 겹치면서 판매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춘절소비증가율 감소는 한시적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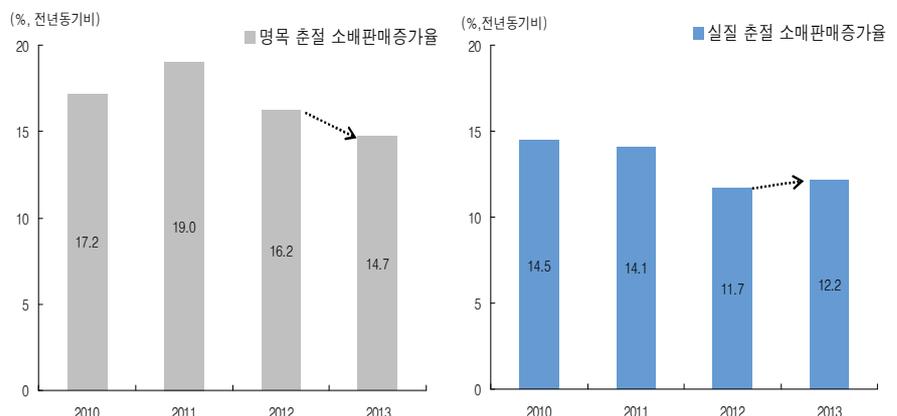
춘절 소비 둔화,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듯

고가 소비가 감소하면서 2012년 연말까지 이어졌던 소비 증가 속도가 주춤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을 감안할 때 구조적 요인보다는 한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가전하향 정책 만료로 가전판매 감소

1) **가전하향 정책 만료**: 2009년 6월부터 실시했던 가전하향 정책이 1월 31일 종료되면서 그 동안 연휴기간 동안 구매가 증대했던 가전판매가 감소하였다.

그림 1.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춘절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반등



주: 2013년 춘절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예상치인 2.5%,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

스모그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주춤

2) **스모그:** 스모그 때문에 소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주춤해졌다. 예하면 전통적인 춘절놀이인 폭죽은 베이징 시에서 판매량이 전년대비 45% 감소하였다.

인플레이를 감안한 실질소매판매는 오히려 반등

3) **계절적 요인과 물가:** 중국은 12월이 소매판매 성수기이다. 통상 춘절기간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그 전해 12월 소매판매 증가율 대비 하락한다. 올해는 낮아진 물가수준도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년 간 춘절 전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인 것에 비해 2013년은 2%대이다 인플레이를 감안한 실질 소매판매 증가율은 오히려 소폭 반등하였다.

부정부패 단속으로 인한 고가 소비 감소

4) **부정부패 단속 강화:** 신화통신에 의하면, 시진핑 총서기가 절약을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 관련 연회,公款 낭비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고급연회가 대폭 감소하였다.

소비 업그레이드와 함께 과시형에서 실속형으로 변화

소비는 업그레이드 함께 실속형으로 변화

춘절 동안 소비가 주춤해지긴 했으나, 이번 춘절기간에 나타난 특징은 소비 업그레이드와 함께 실속형으로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가용 이용이 증대

1) **자가용 이용률 상승:** 지난 추석기간과 마찬가지로 소형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었다. 이에 춘절 기간 고속도로 차량은 전년 동기대비 80.1% 증가하였다.

해외여행 증가, 가까운 홍콩, 한국 여행증가

2) **해외여행 증가:** 국가여행국 통계에 의하면 연휴기간 출국자 수는 400만 명(전년대비 +14%)을 넘었다. 홍콩 방문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 2007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 한국 방문자수도 6.3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하였다.

고가 음식점/식품에 대한 소비는 감소

3) **고가 소비는 감소:** 고급음식점, 고가 식품 및 주류에 대한 소비가 주춤하였다. 예컨대 정부부처의 연회가 감소함에 따라 동부지역 고급레스토랑의 매출이 부진했다. 절강성의 고급 레스토랑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였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실속형 소비 증가

4) **실속형 온라인 소비 증가:** 상하이지역 6개 온라인 판매상의 춘절기간 매출은 1.67억 위안으로 전년 보다 33.5% 늘었다. 가전판매업체인 **수닝전자**와 **오리엔트홈쇼핑**의 온라인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88.1%, 36.8% 증가했다.

그림 2. 춘절기간 전체 여행객, 연 15% 이상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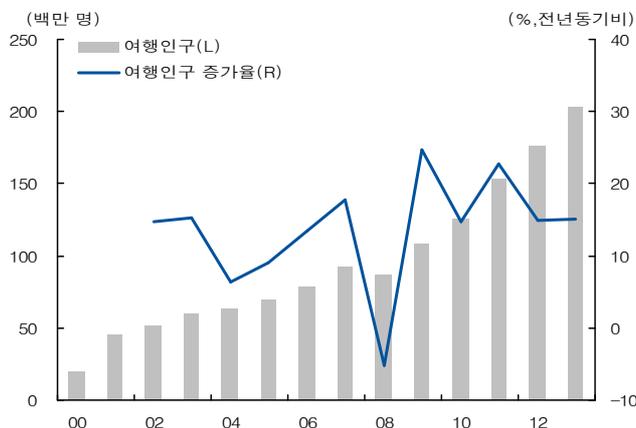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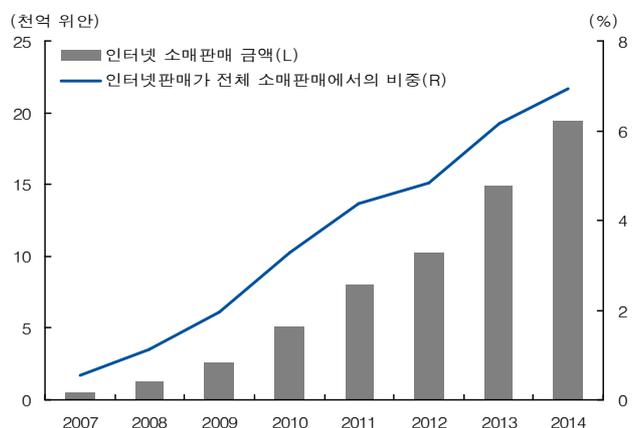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인터넷 소매판매는 꾸준히 증가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

자료: 중국 e-business연구센터(CECRC), KDB대우증권 리서치

52주 신고가 달성 종목의 4대 특징

- 2012년 2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9일 사이 52주 신고가 달성 종목을 살펴본 결과 4가지 특징 확인
- 1) 시총 상위 종목 약진, 2) 2012년 대비 2013년의 중심축은 동일했으나 주변축의 이동 확인, 3) 경기민감주 비중 확대, 4) 내수주 비중 확대
- 이러한 특징들이 의미하는 바는 1) 전반적인 시장センチ멘트의 개선 및 2) 지속 상승 가능성 등 2가지

그림 1. 작년 한해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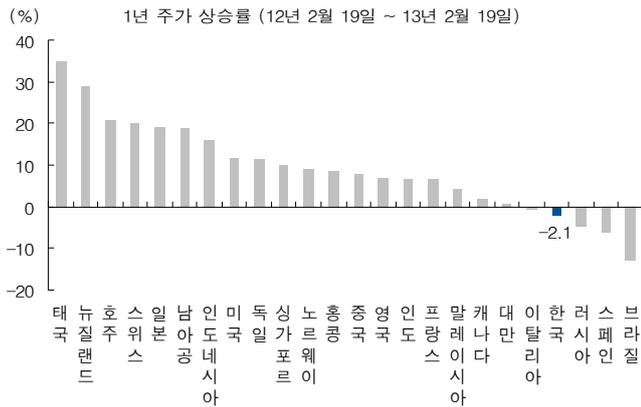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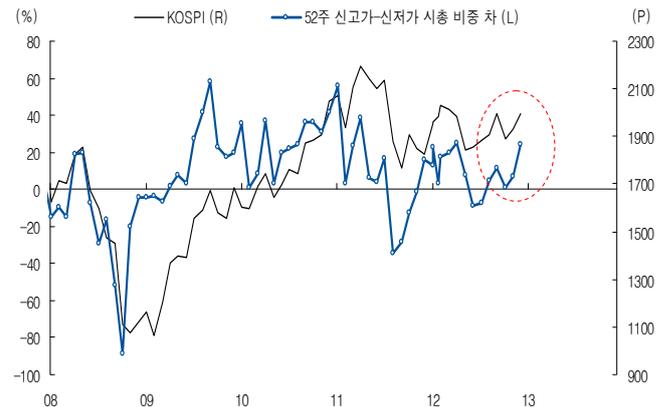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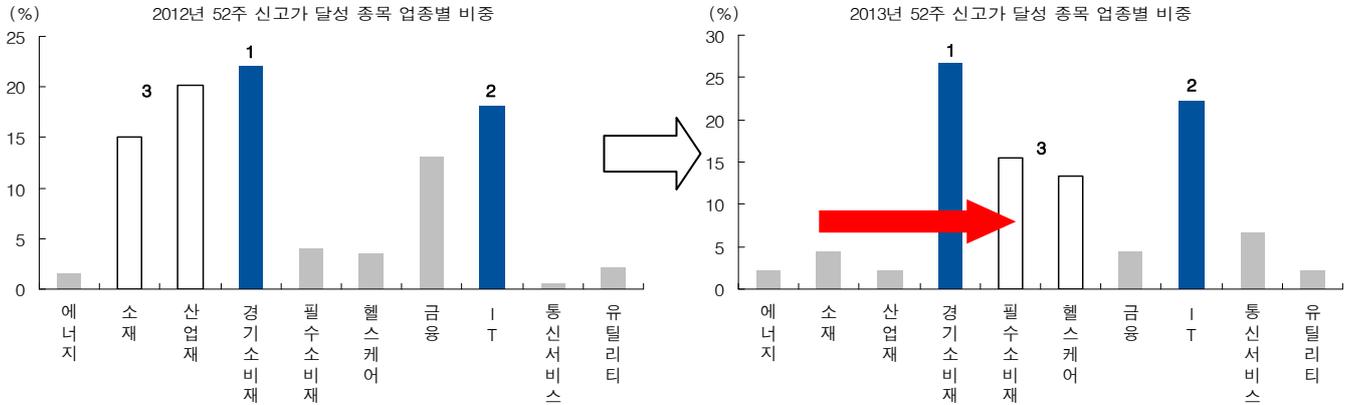
그림 2. 특징 1: 시총 상위 종목의 상대적 약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특징 2: 2년간 중심축은 경기소비재와 IT 섹터. 2013년에는 주변축의 이동 관찰 (산업재/소재 섹터 → 필수소비재/헬스케어 섹터)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특징 3: 경기민감주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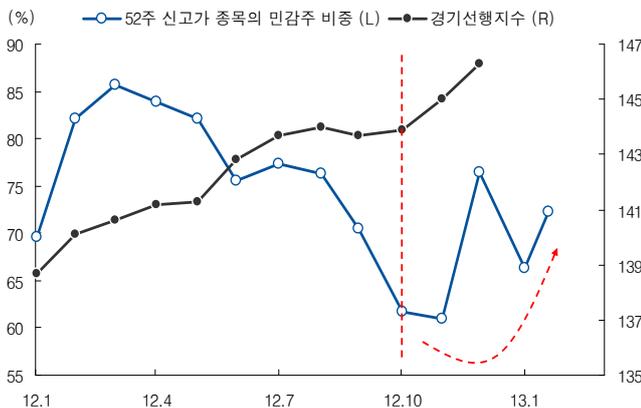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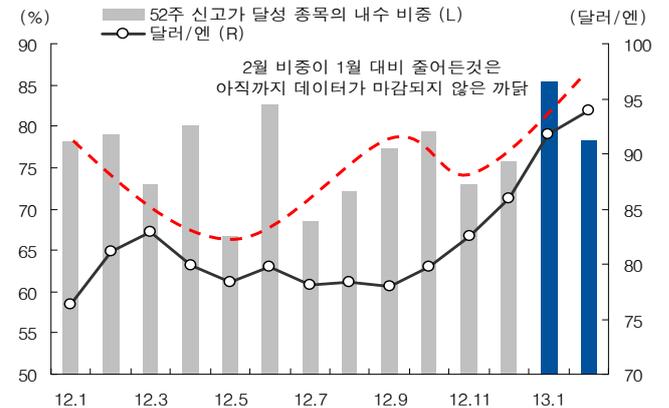


그림 5. 특징 4: 내수 비중 확대, 달러/엔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 탓



자료: WiseFn,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 2월은 2월 18일 기준 /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씨젠 (096530/매수)

바이오

시즌 2 개막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4Q12 Preview: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 하회 예상

4분기 실적은 IFRS별도기준 매출액 160억원 (+34.5% YoY), 영업이익 45.2억원 (+105.6% YoY)으로 시장컨센서스(174억원, 58억원)를 하회할 전망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사상 컨센서스를 하회한 주요 요인은 1) 제품매출 지연, 2) 라이선싱아웃 initial payment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낮기 때문이다.** 동사 매출액은 해외부문에서 +56.7%YoY, 내수에서 +28.6%YoY의 외형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B2B의 기술수출도 중요하지만 자사 브랜드 확대도 필요하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관련산업의 확산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는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조기진단으로 치료의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든지, 사전 예방을 통해 의약품 소비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진단시장의 빠른 성장이 전망되는데 프리미엄 제품은 아니지만 중저가의 제품이면서 경쟁사대비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Multiplex PCR은 한번의 검사로 다수의 병원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다는 비용적 장점이 있어 공보험이 지원하는 보건소, 건강검진센터 등에서의 수요 확대에 따른 향후 세계 분자진단시장 내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OCE기술은 질병의 감염 여부 확인에서 바이러스 및 원인균 감염 여부와 정량적인 분석까지 가능케 하는 기술로 호흡기질환뿐 아니라 암, 간염 등에 주로 적용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B2B 기술수출의 매출액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면 제품으로의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어렵게 되고 자체 브랜드의 마케팅 채널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은 양측으로의 전략적 방향을 재정립할 때라고 보인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3,000원으로 하향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나 **1) 추정치대비 실적 하회 예상과 2) 25% 무상증지를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기존 92,000원에서 73,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2013년 실적은 매출액 725억원(+40.5%YoY), 영업이익 187억원(+41.3%YoY)으로 예상된다. 2013년 외형 성장 근거는 미국의 주요 거래처인 바이오레퍼런스사와의 매출확대 효과와 더불어 동시, 다중, 정량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TOCE 기술의 수출에 따른 선금금(약 70억원)이 매출액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성 개선은 1) R&D 비용과 2)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나연
02-768-3251
irene.kim@dwsec.com

Trading Data & Share Price

매수	Maintain
목표주가(원, 12M)	73,000
현재주가(13/02/19, 원)	64,100
상승여력(%)	13.9
EPS 성장률(13F, %)	16.3
MKT EPS 성장률(13F, %)	18.8
P/E(13F, x)	80.3
MKT P/E(13F, x)	9.4
KOSDAQ	522.49
시가총액(십억원)	1,047
발행주식수(백만주)	16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104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
배당수익률(13F, %)	0.0
유동주식비율(%)	42.4
52주 최저가(원)	42,050
52주 최고가(원)	86,800
베타(12M, 일간수익률)	0.76
주가변동성(12M daily, %, SD)	3.3
외국인 보유비중(%)	4.3

주요주주

천중윤 외 21인(56.76%)
국민연금관리공단(5.07%)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2	26.8	18.0
상대주가	0.3	24.8	19.9

주요사업

분자진단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수출

Earnings & Valuation Metrics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25	6	26.0	6	404	8	-8	30.8	63.1	15.3	52.6
12/11	39	10	25.1	9	575	12	-4	25.9	104.4	28.2	81.5
12/12P	52	13	24.4	11	686	16	0	26.5	111.2	27.8	64.8
12/13F	73	19	25.8	16	798	22	1	30.4	80.3	21.2	48.7
12/14F	82	22	26.7	19	944	25	13	27.1	67.9	16.3	41.8

주: K-IFRS 개별 기준

자료: 씨젠,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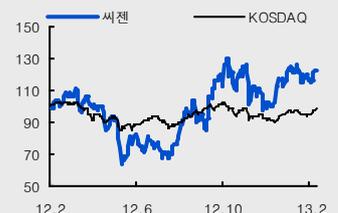


표 1. 4분기 주요 손익 추정 및 컨센서스

(십억원, %, %p)

	4Q11	3Q12	4Q12F			성장률	
			수정후	수정전	컨센서스	YoY	QoQ
매출액	11.9	12.5	16.0	19.5	17.4	34.6%	28.4%
영업이익	2.2	1.9	4.5	5.3	5.8	105.6%	138.1%
영업이익률	18.5%	15.2%	28.3%	27.3%	33.3%	9.8%p	13.0%p
세전이익	2.3	1.8	5.0	6.7	17.3	120.5%	176.2%
순이익	1.6	1.7	4.3	6.5	-2.7	173.9%	151.5%

자료: FnGuid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씨젠 분기별 실적 추이

(십억원, %, %p)

구분	2011					2012F					4Q12F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F	연간	YoY	QoQ	
매출액	제품	4.4	6.4	7.0	7.4	25.2	7.9	8.5	7.7	10.5	34.6	41.9	36.4
	상품	2.7	2.7	1.8	4.8	12.0	2.0	4.5	4.7	5.5	16.7	14.6	17.0
	기타	0.0	0.0	1.5	-0.2	1.3	0.3	0.1	0.0	0.0	0.4	-100.0	-
	계	8.1	9.1	10.4	11.9	39.5	10.1	13.1	12.4	16.0	51.6	34.5	29.0
영업이익	1.8	1.9	3.4	2.2	9.3	2.6	3.9	1.9	4.5	12.9	105.6	138.1	
영업이익률	22.4	20.5	33.1	25.6	25.7	25.7	29.8	15.3	28.3	24.4	2.7	13.0	
세전계속사업이익	1.7	1.9	4.2	2.3	10.1	2.5	3.5	1.8	5.0	12.8	117.4	177.8	
당기순이익	1.6	1.7	4.5	1.6	9.4	2.3	3.0	1.7	4.2	11.2	162.5	147.1	
세전계속사업이익률	21.0	20.9	40.4	19.3	25.6	24.8	26.7	14.5	31.3	24.8	11.9	16.7	
당기순이익률	19.8	18.7	43.3	13.4	23.8	22.8	22.9	13.7	26.3	21.7	12.8	12.5	

자료: 씨젠,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씨젠 수익 예상 변경

(십억원, 원, %, %p)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률			변경사유
	12F	13F	14F	12F	13F	14F	12F	13F	14F	
매출액	58.2	74.6	86.9	51.6	72.5	82.1	-11.3	-2.8	-5.5	기술료 매출 반영지연
영업이익	16	21	24	12.9	18.7	21.9	-18.9	-9.4	-7.9	
세전계속사업이익	16	21	24	12.8	17.9	21.2	-19.0	-12.6	-11.0	
순이익	12	16	18	11.2	15.6	18.5	-9.7	0.8	2.1	
EPS	944	1,184	1,380	686	798	944	-27.3	-32.6	-31.6	-25% 무상증자로 EPS 조정
영업이익률	27.3	27.6	27.4	24.4	25.7	26.7	-2.3	-1.9	-0.7	
세전계속사업이익률	27.1	27.5	27.4	24.8	24.7	25.8	-2.3	-2.8	-1.6	
순이익률	21.3	20.8	20.8	21.7	21.6	22.5	0.4	0.8	1.7	

자료: 씨젠,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아바코 (083930/매수)

디스플레이

가시권에 들어온 턴어라운드

4Q12 실적: 매출액 219억원(-14% YoY), 영업이익 9억원(흑자전환 YoY)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신규 수주는 182억원(+203% QoQ, +73% YoY)으로 개선되었다. 지난 분기까지 디스플레이(LCD/OLED) 고정 장비 수주는 없었으며 대부분 유지 보수 투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의 물류 장비가 신규 수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동사는 LG디스플레이의 핵심 장비 업체로서 2011년까지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적자 지속과 투자 위축으로 연간 신규 수주와 매출액이 각각 74%, 62% 감소했다. 매출액의 급감으로 연간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했다.

LG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의 수혜 예상 → 올해 신규 수주 1,654억원(+162% YoY)

최근 LG디스플레이는 OLED TV 양산을 위해 7,063억원 규모의 8세대 OLED 증착 라인(M2)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 OLED 파일럿 라인(M1)에서 동사는 봉지 장비 76억원을 공급한 바가 있다. 이번 M2 투자는 양산 설비임을 감안하면 봉지와 물류 장비를 포함해 올해 400억원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LED TV의 Oxide(IGZO) TFT를 위한 추가적인 스퍼터 장비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가시성이 낮아 올해 예상 수주 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올해 신규 수주는 1,654억원으로 지난해 631억원 대비 162% 증가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LG디스플레이 OLED 장비 400억원, 광저우 8세대 LCD 장비 500억원, BOE 8세대(B4/B5) LCD 장비 600억원이 예상된다. **지난달 이미 BOE 8세대 LCD 물류 장비 3,400만달러 수주를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를 위한 첫 단추는 잘 꿰었다.**

1분기 신규 수주는 374억원(+105% QoQ, +115% YoY), 매출액 282억원(+29% QoQ, +64% YoY), 영업이익 10억원(+19% QoQ, 흑자전환 YoY)을 예상된다. **실적 개선 모멘텀은 LG디스플레이의 발주가 예상되는 2분기부터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0,000원으로 11% 상향 조정

아바코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지만 목표주가는 10,000원으로 11% 상향 조정한다. 적정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턴어라운드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13~14F EPS를 각각 12%, 2% 상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Stion(동사가 343억원 투자)의 국내 태양전지 라인 투자가 예상보다 오래 지연되는 것은 리스크 요인이다.

황준호

02-768-4140

j.hwang@dwsec.com

Trading Data & Share Price

매수	Maintain
목표주가(원, 12M)	10,000
현재주가(13/02/19, 원)	6,760
상승여력(%)	47.9
EPS 성장률(13F, %)	흑전
MKT EPS 성장률(13F, %)	18.8
P/E(13F, x)	14.5
MKT P/E(13F, x)	9.4
KOSDAQ	522.49
시가총액(십억원)	108
발행주식수(백만주)	16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293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
배당수익률(13F, %)	0.0
유동주식비율(%)	70.0
52주 최저가(원)	5,510
52주 최고가(원)	14,950
베타(12M, 일간수익률)	0.89
주가변동성(12M daily, %, SD)	2.9
외국인 보유비중(%)	1.2

주요주주

위재곤 외 17인(26.54%)

LG디스플레이(15.99%)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1	7.5	-39.9
상대주가	5.2	5.5	-38.0

주요사업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 제조 장비 생산

Earnings & Valuation Metrics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228	18	7.8	15	1,173	18	-39	26.1	10.9	2.5	9.5
12/11	249	11	4.3	9	706	11	23	12.9	13.3	1.6	11.8
12/12P	95	-1	-1.1	0	-13	1	14	-0.2	-	1.0	131.6
12/13F	155	9	5.7	8	468	11	6	7.7	14.5	1.2	7.2
12/14F	196	15	7.7	13	804	18	10	12.0	8.4	1.0	4.0

주: K-IFRS 별도 기준

자료: 아바코,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아바코의 2012년 4분기 주요 손익 추정 및 컨센서스 (K-IFRS 별도 기준)

(십억원, %, %p)

	4Q11	3Q12	4Q12P		성장률	
			발표치	KDB대우 추정치	YoY	QoQ
매출액	25.4	24.1	21.9	32.8	-13.5	-9.0
영업이익*	-0.6	-1.2	0.9	1.8	흑전	흑전
영업이익률*	-2.5	-5.0	3.9	5.6	6.4	9.0
세전이익	-1.0	-1.1	1.0	1.9	흑전	흑전
순이익	-0.1	-1.2	0.9	1.6	흑전	흑전

자료: 아바코, FnGuid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아바코 수익 예상 변경 (K-IFRS 별도 기준)

(십억원, %, %p)

	변경전			변경후			변경률			변경 이유
	12P	13F	14F	12P	13F	14F	12P	13F	14F	
매출액	106	157	195	95	155	196	-10.2	-1.7	0.5	- 턴어라운드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영업이익	1	8	14	-1	9	15	적전	15.7	5.1	
순이익	1	7	13	0	7	13	적전	11.6	1.9	
EPS	47	419	789	-13	467	804	적전	11.6	1.9	
영업이익률	0.6	4.8	7.4	-1.1	5.7	7.7	-1.7	0.8	0.3	
순이익률	0.7	4.3	6.5	-0.2	4.8	6.6	-0.9	0.6	0.1	
원/달러 환율	1,123	1,064	1,045	1,126	1,042	1,033	0.3	-2.1	-1.2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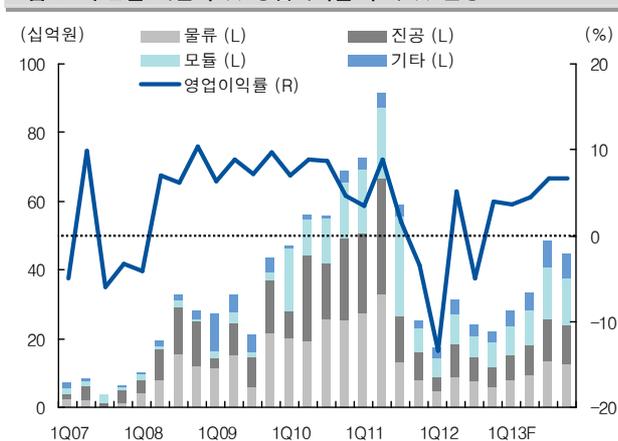
표 3. 아바코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K-IFRS 별도 기준)

(십억원, %)

구분	1Q12	2Q12	3Q12	4Q12P	1Q13F	2Q13F	3Q13F	4Q13F	2012P	2013F	2014F
신규수주	17.4	21.4	6.0	18.2	37.4	38.8	47.1	42.2	63.1	165.4	197.4
매출액	17.2	31.4	24.1	21.9	28.2	33.5	48.4	44.7	94.7	154.7	195.8
물류 장비	4.8	8.7	7.4	5.8	7.8	9.4	13.6	12.6	26.6	43.3	48.9
진공 장비	4.1	9.9	7.3	6.1	7.3	8.6	12.3	11.3	27.4	39.5	51.8
모듈 장비	5.3	8.4	5.9	7.1	8.6	10.3	14.9	13.7	26.7	47.5	64.7
기타	3.1	4.5	3.5	2.9	4.4	5.3	7.6	7.0	14.0	24.4	30.4
매출액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물류 장비	27.6	27.6	30.8	26.3	27.7	28.0	28.1	28.1	28.1	28.0	25.0
진공 장비	23.8	31.4	30.2	27.9	26.0	25.6	25.4	25.4	28.9	25.5	26.5
모듈 장비	30.6	26.7	24.5	32.5	30.6	30.7	30.7	30.8	28.2	30.7	33.0
기타	18.0	14.2	14.4	13.2	15.8	15.8	15.7	15.7	14.7	15.7	15.5
영업이익	-2.3	1.6	-1.2	0.9	1.0	1.5	3.2	3.0	-1.0	8.8	15.1
영업이익률	-13.4	5.2	-5.0	3.9	3.6	4.6	6.6	6.7	-1.1	5.7	7.7
순이익	-1.3	1.4	-1.2	0.9	0.9	1.3	2.7	2.6	-0.2	7.5	12.9
순이익률	-7.5	4.6	-5.0	3.9	3.1	3.9	5.6	5.7	-0.2	4.8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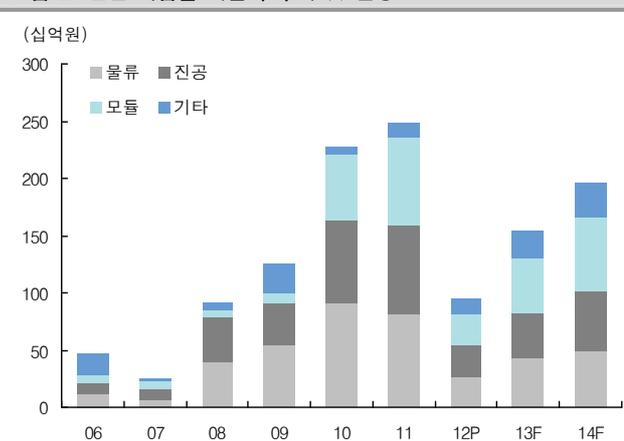
자료: 아바코,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아바코,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연간 제품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아바코,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83.6 / 5일 2168.5)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632.8 / 5일 3402.6)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운수장비	382.4	318.4	운수창고	-163.8	-320.8	운수장비	197.6	12.0	통신업	-139.8	-298.7
전기전자	203.0	1,365.5	화학	-128.9	-93.8	음식료	188.3	493.1	전기가스	-87.1	-459.0
은행	112.3	304.0	유통업	-108.1	17.3	전기전자	186.0	2,201.3	건설업	-38.1	35.9
전기가스	80.3	150.1	음식료	-96.7	-388.0	화학	172.6	1,006.0	증권	-33.6	-40.2
금융업	56.3	741.8	보험업	-94.8	-45.1	서비스업	91.4	389.7	금융업	-33.4	-726.8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KODEX레버리지	243.2	763.7	LG화학	-233.6	2.3	오리온	137.5	320.0	KT	-126.9	-528.5
SK하이닉스	166.4	577.1	현대글로비스	-146.5	-182.1	SK이노베이션	99.6	-154.4	KODEX 200	-113.8	-697.9
기아차	160.8	498.7	KODEX 인버스	-104.5	-22.7	현대모비스	98.9	483.4	한국전력	-80.6	-483.1
LG전자	155.8	678.4	GKL	-97.3	-137.0	삼성전자	96.9	1,265.0	제일모직	-76.1	-147.8
KODEX 200	148.3	742.3	오리온	-89.6	-108.9	신한지주	74.4	164.0	KB금융	-72.7	-960.0
기업은행	106.0	185.3	금호석유	-85.8	-78.9	NHN	65.8	439.4	엔씨소프트	-68.2	-10.0
현대중공업	98.5	613.7	호텔신라	-74.9	-50.0	기아차	52.4	-263.2	현대미포조선	-46.4	-46.3
대우조선해양	94.6	58.8	KT	-61.6	-164.3	KODEX레버리지	46.9	122.4	삼성엔지니어링	-42.3	60.0
코스맥스	80.9	-63.5	현대건설	-57.5	-9.3	현대차	43.1	1,028.8	삼성증권	-40.1	-28.4
GS건설	65.5	34.6	두산인프라코어	-53.1	-30.1	LG전자	40.5	164.7	SK하이닉스	-36.3	675.3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227.7 / 5일 -208.4)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99.9 / 5일 980.7)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반도체	178.5	53.8	유통	-63.5	5.9	반도체	118.2	112.8	유통	-61.1	1.8
IT부품	81.6	-77.1	통신서비스	-39.0	-27.8	IT부품	54.7	271.2	인터넷	-60.1	-56.9
오락.문화	36.5	-18.2	통신방송	-23.2	-251.7	오락.문화	37.2	60.1	통신장비	-25.3	-21.3
디지털콘텐츠	28.5	73.9	소프트웨어	-15.7	27.1	의료.정밀기기	33.9	3.7	소프트웨어	-12.3	-7.9
인터넷	24.2	-106.5	금속	-11.4	2.9	제약	21.5	132.5	출판.매체복제	-1.8	-0.8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서울반도체	128.7	12.3	제로투세븐	-53.7	-	서울반도체	61.5	47.5	다음	-63.8	-63.1
네패스	61.4	37.3	SK브로드밴드	-38.9	-27.4	파트론	42.3	206.0	제로투세븐	-57.4	-
CJ오쇼핑	33.7	-69.4	한국사이버결제	-23.9	-44.1	파라다이스	35.4	76.7	게임빌	-26.6	-17.0
옵트론텍	33.2	31.3	파트론	-23.7	-223.6	오스템임플란트	31.7	13.8	메디톡스	-23.4	11.1
게임빌	32.2	-66.5	마크로젠	-19.1	-3.8	셀트리온	21.5	113.5	모다정보통신	-23.4	-11.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7.0	-32.4	CJ E&M	-15.7	-123.9	메디포스트	20.8	1.8	이노칩	-16.7	-18.8
메디톡스	26.5	3.1	성광밴드	-14.3	9.6	컴투스	18.7	-20.7	실리콘웍스	-8.1	-47.3
다음	22.4	-105.9	셀트리온	-13.4	-14.3	덕산하이메탈	14.4	65.0	아가방컴퍼니	-7.5	-3.4
지디	15.1	-36.7	다날	-13.0	-19.2	유진테크	14.0	37.2	인터플렉스	-5.8	-27.7
우리이티아이	13.1	23.7	유원컴텍	-12.5	-6.3	루멘스	12.5	-13.7	휴비츠	-4.0	-35.9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ODEX 200	40,707.7	LG화학	-10,530.9	현대중공업	7,512.9	LG화학	-5,422.5
기아차	9,464.2	KT	-7,252.8	LG전자	5,662.4	삼성전자	-5,324.5
하나금융지주	7,706.1	KB금융	-6,276.5	SK하이닉스	5,303.0	현대차	-4,325.8
SK하이닉스	7,657.9	호텔신라	-5,186.7	KB금융	4,807.1	삼성엔지니어링	-4,217.9
LG전자	7,501.0	현대글로벌비스	-4,947.1	대우조선해양	4,258.9	현대글로벌비스	-4,041.8
SK이노베이션	5,726.5	현대건설	-4,465.7	기업은행	3,842.1	두산인프라코어	-3,797.5
현대중공업	5,262.5	금호석유	-3,879.4	기아차	3,421.0	GKL	-3,482.3
기업은행	4,877.8	LG생활건강	-3,799.6	삼성중공업	2,984.2	오리온	-2,847.1
S-Oil	4,734.1	TIGER 200	-3,479.0	대림산업	2,526.1	삼성생명	-2,371.3
GS건설	3,855.5	오리온	-2,988.3	LG디스플레이	2,497.9	NHN	-2,254.2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B금융	1,802.3	SK텔레콤	-1,760.6	KODEX 200	9,363.2	파워 K200	-16,849.3
KT	1,574.8	OCI	-1,378.0	TIGER 200	7,742.5	LG화학	-6,084.6
TIGER 200	1,387.6	하나금융지주	-1,357.6	대우조선해양	3,467.5	현대글로벌비스	-5,143.4
아모레퍼시픽	688.2	신한지주	-1,009.1	KB금융	3,089.7	삼성전자	-3,572.3
기업은행	535.0	POSCO	-705.7	KODEX 삼성그룹	2,970.7	아리랑 배당주	-3,501.0
LG상사	513.0	삼성전자	-656.8	LG전자	2,715.8	삼성물산	-3,071.4
롯데케미칼	459.4	SK이노베이션	-656.0	기아차	2,529.6	SK이노베이션	-2,683.1
대한항공	442.9	GKL	-527.4	기업은행	2,253.3	LG하우시스	-2,674.4
LG패션	433.6	대우조선해양	-509.9	현대중공업	1,860.7	KINDEX200	-2,645.8
삼성중공업	412.1	오리온	-452.8	현대미포조선	1,790.9	하나금융지주	-2,553.7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도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KODEX 레버리지	4,689.1	24,321.4	KT	12,691.3	6,155.8
기아차	5,239.6	16,078.4	현대해상	515.1	3,339.5
LG전자	4,048.9	15,580.6	삼성엔지니어링	4,226.9	2,967.9
대우조선해양	3,180.5	9,463.4	삼성전기	218.7	2,773.0
코스맥스	2,857.1	8,094.3	현대그린푸드	659.8	1,916.5
S-Oil	3,424.7	5,858.4	락앤락	708.8	1,703.1
한국타이어	490.7	2,812.7	키움증권	98.1	1,547.1
한국콜마	929.7	2,254.1	현대백화점	1,891.6	1,415.6
SKC	2,843.8	1,949.4	한진해운	185.7	1,105.4
현대차	4,313.4	925.9	현대하이스코	1,282.9	694.3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네패스	2,559.6	제로투세븐	-1,723.1	서울반도체	3,303.8	한국사이버결제	-1,917.0
파라다이스	1,993.2	유원컴텍	-801.6	다음	2,062.1	파트론	-1,266.4
옵트론텍	1,763.4	GS홈쇼핑	-759.4	메디톡스	1,887.4	셀트리온	-1,168.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592.4	ISC	-749.5	아이센스	1,266.8	마크로젠	-1,083.9
유진테크	843.2	에스에프에이	-666.6	네패스	1,202.2	SK브로드밴드	-984.8
CJ E&M	752.3	미디어플렉스	-581.2	지디	645.5	다날	-703.1
지디	689.9	매일유업	-422.4	제닉	640.2	성광밴드	-616.1
우리이티아이	629.9	SK브로드밴드	-386.7	위메이드	636.7	예림당	-596.2
서울반도체	574.9	성광밴드	-346.2	젬백스	634.4	골프존	-424.9
인터플렉스	489.4	오스템임플란트	-340.6	제로투세븐	588.9	유원컴텍	-379.1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G이니시스	246.0	서울반도체	-231.5	서울반도체	4,746.6	실리콘웍스	-693.3
루멘스	167.0	인프라웨어	-178.0	네패스	1,696.0	파트론	-513.6
네패스	151.7	지디	-175.6	파라다이스	1,310.1	씨젠	-486.8
유원컴텍	142.5	파트론	-169.7	CJ오쇼핑	1,189.9	바이오랜드	-429.7
솔브레인	116.0	알에프세미	-149.3	옵트론텍	554.5	다날	-258.8
한글과컴퓨터	107.5	캠트로닉스	-98.9	메디톡스	493.6	유진테크	-232.9
툽텍	101.6	덕산하이메탈	-84.7	위메이드	395.6	게임빌	-226.6
다날	100.2	성광밴드	-62.6	우리이앤엘	362.2	인지디스플레이	-212.5
디스플레이텍	99.4	시노펙스	-59.7	제로투세븐	333.0	세코닉스	-184.4
다음	96.8	컴투스	-55.0	모두투어	244.4	나노신소재	-159.0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서울반도체	6,148.3	12,870.8	제로투세븐	5,743.1	5,365.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33.1	2,702.7	한국사이버결제	291.8	2,385.5
지디	36.6	1,513.3	유원컴텍	41.9	1,254.6
유진테크	1,396.1	1,207.8	신흥기계	52.3	615.3
파라다이스	3,541.1	506.9	실리콘웍스	814.7	605.5
슈프리마	1,055.9	404.2	캠트로닉스	137.5	601.2
플렉스컴	1,142.8	258.5	예림당	99.2	596.2
컴투스	1,869.2	219.2	포스코컴텍	176.4	372.9
덕산하이메탈	1,442.0	210.3	코오롱생명과학	215.9	312.1
메디포스트	2,078.3	143.1	KG이니시스	297.6	202.2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장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 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303	1306	1309	KSPH3H6S
기준 가격	261.63	262.30	263.85	265.65	1.65
시가	261.64	262.50	263.85	265.65	1.60
고가	262.89	264.10	265.50	265.65	1.65
저가	261.28	261.90	263.85	265.65	1.55
종가	262.16	263.35	265.00	265.65	1.60
전일 대비	0.53	1.05	1.15	-	-0.05
이른 가격	-	262.65	264.27	265.99	1.62
총 약 정 수 량 *	57,826	142,793	101	-	137
총 약 정 금 액 **	2,047,207	18,772,606	13,363	-	36,162
미 결 제 약 정	-	107534 (2336)	3533 (43)	299 (0)	-
배 당 지 수 ***	2.83% (CD금리)	0.00	0.23	0.35	-
반 응 배 수		1.37	1.02	-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0.912			
전 일 대 비		0.096			

주 :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 변동폭/일중 현물가격 변동폭, KSPH3H6S : 3월물과 6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 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59,658	46,626	32,322	101	1,170	832	1,289	895
	매 도	58,065	47,114	33,519	120	868	742	1,548	916
	비 중	41.2%	32.8%	23.0%	0.1%	0.7%	0.6%	1.0%	0.6%
순 매 수 누 적	전 일	1,593	-488	-1,197	-19	302	90	-259	-21
	누 적	-17,619	12,980	-552	577	4,166	1,148	-1,332	642
매 매 편 향 강 도		1.35%	-0.52%	-1.82%	-8.60%	14.82%	5.72%	-9.13%	-1.16%

주 :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PI200	
KOSEF	75	0.28%	117	3,092	0.00%	NAV (ETF-NAV)%	26,549	26,515
KODEX200	75	0.28%	2,759	73,104	7.73%	T/E	-0.01%	-0.02%
						합성현물	0.01%	0.02%
종가/100	265.45	265.10	262.88	263.35	263.35	설정주수	0	3100
eff.delta	1.42	1.42	2.11	1.98	2.08	환매주수	0	600
diff/basis	1.25%	1.12%	0.28%	1.19	1.19	상장주수	13450	1546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표 내재변동성	0.125	콜평균	0.128	풋평균	0.122	역사적 (5일)	10.8	역사적 (20일)	11
월물 행사가격		1303					1304		
		267.5	265.0	262.5	260.0	257.5	265.0	262.5	260.0
Call	가격	1.59	2.50	3.75	5.35	7.15	4.50	5.65	7.15
	전일 대비	0.24	0.33	0.50	0.65	0.75	0.35	0.25	0.40
	내재변동성	12.90	13.20	13.70	14.60	15.30	13.70	13.70	14.10
	거래량	123,829	125,358	17,490	7,042	1,356	286	374	48
	미결제	16,621	17,074	11,593	8,852	2,652	620	592	416
Put	가격	5.70	4.10	2.90	1.94	1.28	6.55	4.30	3.45
	전일 대비	-0.90	-0.80	-0.60	-0.53	-0.37	0.05	-0.85	-0.60
	내재변동성	9.60	10.30	11.10	11.60	12.10	13.90	11.50	12.20
	거래량	1,408	6,707	23,418	101,481	90,899	84	326	205
	미결제	1,123	3,297	5,817	12,794	13,640	145	385	464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336,665	210,084	112,855	0	1,269	212	4,885	161
	매도	335,800	209,130	114,865	0	1,265	235	4,687	147
	비중	50.5%	31.5%	17.1%	0.0%	0.2%	0.0%	0.7%	0.0%
순매수 누적	전일	865	954	-2,010	0	4	-23	198	14
	누적	722	3,751	-2,444	0	-883	-361	-752	-27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348,010	181,793	84,483	0	1,299	349	181	4,343
	매도	346,728	179,013	88,881	0	1,287	208	169	4,172
	비중	56.0%	29.1%	14.0%	0.0%	0.2%	0.0%	0.0%	0.7%
순매수 누적	전일	1,282	2,780	-4,398	0	12	141	12	171
	누적	21,401	-11,131	-8,686	0	24	234	51	-1,893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익거래 잔고 (백만원)	최근월물	5,398,975	9,178,865	9,255,467	5,399,642	-	-	-	-
	기타	-	-	-	-	-	-	-	-
	합계	5,398,975	9,178,865	9,255,467	5,399,642	0	0	0	0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로그램 매매 동향 (백만원)	차익	46	0.01	1,856	0.07	267	0.08	15,001	0.54
	비차익	12,220	3.59	388,080	14.09	14,752	4.33	497,413	18.05
	합계	12,267	3.60	389,937	14.15	15,020	4.41	512,414	18.60
베이스스 수준		1.275	1.175	1.075	0.975	0.875	0.775	0.675	0.575
차익성 순매수		2183	2925	3938	1356	90	417	313	485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02/19 (화)	02/18 (월)	02/15 (금)	02/14 (목)	02/13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985.83	1,981.91	1,981.18	1,979.61	1,976.07	
	이동평균	5일	1,980.92	1,972.91	1,966.71	1,956.83	1,948.14
		20일	1,961.43	1,961.48	1,961.78	1,961.43	1,961.32
		60일	1,967.52	1,965.92	1,964.19	1,962.19	1,960.37
	이격도	20일	101.24	101.04	100.99	100.93	100.75
		60일	100.93	100.81	100.86	100.89	100.80
	거래량	344,264	420,692	598,838	336,033	331,012	
	거래대금	28,152.7	28,744.8	39,994.6	34,268.4	37,032.9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0.97	1.18	1.68	0.94	0.93	
	거래대금 회전율	0.24	0.25	0.35	0.30	0.32	
	심리지표	70	60	50	40	30	
	ADR	91.23	92.89	96.04	92.57	86.80	
	이동평균	20일	93.11	93.77	93.98	94.45	95.32
	VR	85.40	67.91	70.95	51.93	57.07	
코스닥시장		02/19 (화)	02/18 (월)	02/15 (금)	02/14 (목)	02/13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522.49	518.52	514.58	512.53	507.99	
	이동평균	5일	515.22	511.47	508.75	506.19	504.20
		20일	507.66	507.27	506.96	506.54	506.30
		60일	500.73	500.30	499.88	499.35	499.04
	이격도	20일	102.92	102.22	101.50	101.18	100.33
		60일	104.35	103.64	102.94	102.64	101.79
	거래량	480,404	477,324	438,339	433,338	435,230	
	거래대금	22,118.9	19,042.4	19,154.3	17,637.8	16,898.6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2.36	2.28	2.10	2.07	2.08	
	거래대금 회전율	1.91	1.65	1.68	1.55	1.50	
	심리지표	80	70	60	50	50	
	ADR	94.74	94.58	97.12	91.78	86.85	
	이동평균	20일	93.28	94.31	94.78	95.53	96.62
	VR	92.09	71.52	72.83	74.40	75.30	
자금지표		02/19 (화)	02/18 (월)	02/15 (금)	02/14 (목)	02/13 (수)	
국고채 수익률(3년)		2.69	2.71	2.72	2.73	2.73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AA-		3.03	3.06	3.07	3.08	3.08	
원/달러 환율		1,081.20	1,082.10	1,078.30	1,083.80	1,086.80	
CALL금리		2.74	2.74	2.74	2.74	2.75	
주식형(국내)		-	676,867	675,922	676,180	676,509	
주식형(해외)		-	253,259	253,473	253,522	253,609	
채권형		-	478,952	478,338	476,855	475,336	
고객예탁금		-	174,672	168,800	165,808	168,523	
고객예탁금 회전율		-	27.36	35.04	31.30	32.00	
순수예탁금 증감		-	4,395	-560	-2,589	2,702	
미수금		-	1,320	1,201	1,236	1,155	
신용잔고		-	40,555	40,572	40,612	40,723	

단위: P, %, 천주, 억원 / 주: 고객 예탁금 회전율 = (거래대금/고객예탁금) x 100